

음악신학, 기독교의 본질을 향한

장우형(서울장신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 I. 들어가면서
- II. 시대의 요구, 음악신학
- III. 음악신학의 타당성
- IV. 아브라함 종교들의 비교로 본 음악신학
 - 1. 이슬람의 경우
 - 2. 유대교의 경우
- V. 결론
- VI. 참고문헌

I. 들어가면서

신학에서 지금까지 기독교음악이란 교의적인 연구대상이거나 성서신학적인 연구대상이 아니었다. 교회음악은 항상 실천신학의 한 부분으로서만 여겨졌다. 왜냐하면 교회음악은 그 자체로서 어떤 경우에도 교리상 해석의 차이를 설명하거나 교단사이의 서로 다른 교의적 맥락 속에서 구분하여 규정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 음악은 성서신학적으로도 전혀 문제시할 수 없는 부문으로 여겼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음악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시편을 예로 들었고 성서 전체를 통하여 '찬양', '찬송', '노래'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 모든 구절을 들어 설명하면서 각각의 원어-할랄, 야다, 바락 등등-를 그 뜻에 따라 설명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설사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전혀 다르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맥락 자체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기독교음악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어떠한 장르가 있었고 그것들이 어떠한 변천을 거쳤으며 각 장르의 쓰임새가 예전(liturgy)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무대용인지 혹은 행사용인지 등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예전(liturgy)에 사용하는 음악 중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아멘' 혹은 '알렐루야' 등의 경우에도 언제부터 왜 어떻게 이 '아멘'이 혹은 이 '알렐루야'가 음악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조차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즉, 그것이 음악인이상 교의적이거나 성서신학적으로는 연구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II. 시대의 요구, 음악신학

그러나 1964년 미국에서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 시작하여 확산되면서 기독교 음악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¹⁾ 한국교회음악계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새로운 CCM에 대해 논란을 거듭해 왔다. 여기에는 새로운 CCM의 음악적인 성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1) 장우형, "경배와 찬양 위주의 예배의 교회음악, 그 평가와 변화의 방향성," 「한국교회음악협회 제3차 학술포럼」 (2009): 전통적인 교회음악이 오늘날의 컨템퍼러리 크리스천음악(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을 거쳐 현대 예배음악(CWM: Contemporary Worship Music)으로 변화된 첫 번째 시도는 1964년 미국의 레이 랩(Ray Rapp)이라는 사람이 가톨릭 교회에 포크(Folk)미사 "미국의 젊은이를 위한 미사(Mass For Young Americans)"를 선보임으로써 시작되었다.

제시하는 신학적인 근거와 새로운 CCM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신학적인 근거가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CCM으로 야기된 기독교음악의 이론적 근거는 더 이상 실천신학에서만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이건 의도적이건 조직신학의 교의적 위치를 점검할 뿐 아니라 성서신학의 문맥의 점검이나 단어의 해석까지 요구하게 되었다. Contemporary Worship Music: A Biblical Defense(1997)라는 글을 쓴 존 프레임은 CCM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하면서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로 귀착된다고 하였다.²⁾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극단적인 예로는 이광복의 “세속음악의 교회침투 이렇게 이루어진다”(흰돌 1997)를 들 수 있다. 이 책의 추천사에서 한 원로 목회자는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단의 음악이 이미 교회 안에 침투해 있다”고 단정하여 말한다. 이 책의 저자 자신은 “세속음악은 사단의 무기”(15쪽)이며, 그 중 특별히 록 음악은 (1)사단을 찬양하고 (2)사단의 교회를 세우며, (3)사단경을 전하고, (4)강신술을 사용하며, (5)신흥종교를 만들고, (6)인간을 신격화하며, (7)인간을 지옥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본다(제 2장). 또한 록 음악은 (1)하나님을 모독하며, (2)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3)성경을 모독하며, (4)십자가를 모독하고, (5)교회를 저주하고, (6)천국을 거부하며, (7)종교통합 운동을 유도한다고 한다(제 4장). 이어서 그는 록음악이 윤리와 사회와 인간성을 무너뜨리며(5장), 청소년들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한다(6장). 그는 세속음악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요소”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백해무익한 독소일 뿐”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단은 세속음악을 기독교로 유입시켜 성도들을 타락시키려 하기 때문이다”(99쪽). 그는 특히 “세속음악의 대표격인 록 음악이 크리스찬 록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거부감을 완화시켜 교회로 침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³⁾

이런 혹독한 비평의 관점에 대해서 김정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쨌든 위의 비판은 같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음악을 통한 “현대적인 기독교적 표현”에 대해 너무나 대립적인 시각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런 갈등들은 우리 “믿음과 행위”의 참된 잣대가 되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Sola Scriptura), 보다 깊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신학적 작업을 요청하고 있다.⁴⁾

위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CCM과 그에 따른 기독교음악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실천신학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이 아니고 좀 더 교의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기독교음악은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지도 않았고 조직신학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음악을 학문적인 입장에서 조직신학의 범주에 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음악의 특징상 기독교음악에서 가사만 따로 떼어서 조직신학에 넣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음악만 떼어서 실천신학에 넣는 것도 절대 옳다고 보여 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음악은 가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사만 강조하다보면 음악과 함께하는 가사의 힘과 영향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음악의 존재와 가치는 가사와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져 다루어질 때 빛을 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음악 안에는 성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악이 커다란 축을 형성하고 있기에, 이 모든 것을 학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의 조직신학적인 방법으로는 부족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가사만을 강조할 때

2) 김정우, “신학적 관점에서 본 CCM,” 『기독교교육연구, Vol.11 No.1』 (2000), 131. 재인용.

3) 앞의 논문, 137. 재인용.

4) 앞의 논문, 139.

에는 당연히 성서신학적인 방법론이 필요불가결해 보이지만 장르별로 연구해보면 전혀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난곡 중 ‘십자가상의 칠언’의 경우를 보면 4복음서에 나오는 각각의 사건을 하나로 모아 편집한 경우인데, 각 복음서의 특징과 저자의 의도를 거의 ‘무시’한 경우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음악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이다. 2000년 동안 아무도 이것의 신학적 영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신학적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즉,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의 경우를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기독교음악에 대하여 새로운 ‘신학으로서의 음악’, 즉 ‘음악신학’이 필요한 것이다.

III. 음악신학의 타당성

‘음악신학’ 즉 신학으로서의 음악은 단순히 기독교음악이 프로스퀴네오적 음악인지 케리그마적 음악인지 코이노니아적 음악인지를 분류한다거나 기독교음악의 주체가 누구인지 혹은 어떠한 형식, 예를 들어 마니피카트, 테데움, 미사, 레퀴엠, 모테트, 앤덤, 오라토리오 등등을 열거하거나 연구하거나 새로운 분류법을 제시한다고 해서 신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예배와 음악의 기원이나 변천을 연구하거나 예배의 형식 속에서 어떠한 예전 의식(Liturgy)이 있었는지 그 형식이 어떠한 변천을 거쳤는지를 연구하는 것으로는 새로운 신학적인 영역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실천신학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기독교음악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행해질 대부분의 연구를 ‘이미’ 포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독교음악이 현세대에 와서 신학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혹은 신학적인 바탕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해서 그 누구도 선뜻 “이래서 우리에게 음악신학이 필요한 거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교회 안에서 조명이 중요하다고 해서 조명신학을 만들 수 없고 음향이 중요하다고 해서 음향신학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런 식의 논리전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도바울에게 내린 성령이 나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임재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마치 “나도 성경을 쓸 수 있다.”와 같은 엄청난 신학적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논리의 전개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실을 혹은 진리를 말한다는 필요충분조건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교의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조직신학의 경우에도 위에서 이야기한 논리의 전개와 방법이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변증법과 같은 고전적인 논리체계도 그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모든 교단의 교의적 정의가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인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세례의 의미나 성찬의 의미 혹은 장로교의 예정론과 감리교의 수정예정론이 얼마나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이러한 조직신학의 인간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학문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새로운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어떤 주제를 지금까지 적용해온 방법론을 사용해서 연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음악신학의 경우에도 실천신학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던 교의적인 해석이나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필요한일일지언정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의 관심은 오히려 음악신학이라기 보다 좀 더 기독교의 본질을 향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독교의 본질을 향한**

질문은 새롭거나 진부하거나 한다고 해서 그 유용성이나 판단자체를 유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IV. 아브라함 종교들의 비교로 본 음악신학

구약에서 신약을 전제로 하지 않은, 예언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는 기독교의 입장뿐 아니라 이슬람이나 유대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기독교가 구약을 다루는 방법은 보통 5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거절모델, 둘째, 대조모델, 셋째, 그리스도 증거 모델, 넷째, 상대화와 선별 모델, 다섯째, 대화 모델이다.⁵⁾ 이경숙에 의하면 이 중 다섯째 대화모델에는 주로 80년대 이후 독일의 진보적인 학자들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둘째, 셋째, 넷째 모델도 기독교 우월주의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둘째, 셋째, 넷째 모델은 모두 신약 성서에 대한 특정한 이해에 근거해서 구약 성서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이런 의도 없이 읽는다면 구약과 신약 사이의 폭넓은 관련성들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이들은 우선 신약 성서에서 또 초기 교회사회에서 구약 성서를 얼마나 왜곡했는가를 밝힌다. 다시 말하자면 신약을 읽어보면 구약이 신약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신약이 구약으로부터 기록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약은 구약의 빛에서 읽혀져야 한다. 이제껏 그리스도가 구약에 의해 증거 되고 예언된 것만 말했지, 구약, 즉 율법을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반대의 증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구약의 위치를 신약 성서에 들어있는 그 자리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한다.⁶⁾ 음악이 이 세 가지 아브라함 종교 즉,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며 혹은 배척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 종교의 공통분모로서 구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약을 세 종교의 공통분모로서 연구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대화모델이 가장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대화모델은 연구자의 위치가 어디까지나 기독교의 입장이고, 다른 두 종교와 비교하는 연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통분모인 구약을 통해서 음악의 예전적사용이 각 종교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슬람에서 음악의 예전적사용을 살펴본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슬람의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 일이고 또한 유대교에서 음악의 예전적사용을 살펴본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비교하고, 결과에 따라 각 종교가 구약경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내재적으로 비판할 뿐이다.

1. 이슬람의 경우

이슬람이 인정하는 경전은 모세의 토라(Torah), 다윗의 시편(Zabur), 예수의 복음서(Injil), 마호멧(무함마드)의 꾸란(Quran) 등 다섯 권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책은 원래 있었으나 지금은 그 형체마저 사라져버렸다고 본다. 모세의 토라도 모세가 한 권으로 쓴 책이었으나 유대교에서 5권으로 나누어 변질시킨 책이 되었다. 다윗의 시편도 본래 다윗 한 사람이 쓴 시집인데 유대교에서 여러 사람들이 쓴 시들을 한군데 모음으로써 변질되었다. 이슬람은 신약성경을 예수의 복음서로 본다. 그러나 기독교의 전통에 의하면 예수 자신은 복음서를 쓴 적이 없다. 이

5) 이경숙,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연속과 단절 - 기독교와 유대교의 문화적 소통을 위하여” 「구약논단」 Vol.15 No.1, (2009), 157.

6) 앞의 논문, 160.

슬람은 예수가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며 예수의 복음서도 후대의 기독교가 4권으로 나눔으로써 변질되었다고 본다.⁷⁾ 결국 이슬람에게 경전은 꾸란만이 남는다. 나머지 모세5경과 시편, 예수의 복음서는 실체가 없는 경전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은 이 네 개의 실체가 없는 경전 속에서 음악이 예전에서 어떠한 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느냐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꾸란에도 자세하게 여러 번 언급되지만 시편과 같이 음악적인 모티브로서는 적용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음악도 우상숭배 의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다. 몇몇 하디스에 따르면 악기는 자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악마와 같다고 언급했다. 대부분의 이슬람 법률가들과 법학자들은 음악을 회피한 것이 현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비난했으며 금지가 아닌 혐오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었다.⁸⁾ 그렇다고 해서 무슬림들이 예전 외에도 음악을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예전 안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철저히 음악이 배척되었다.

이슬람에는 오신오행(五信五行) 혹은 육신오행(六信五行)이라는 것이 있다. 이 중에서 오행에 속하는 것이 신앙고백(shahadah), 기도(salah), 자선(zakah), 금식(sawm), 순례(haji)이다.⁹⁾ 이 다섯 가지는 이슬람의 지고한 율법의 결정적 부분이라고 하겠다. 여기에는 그나마 '찬양'마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슬람의 창조론은 지상에서 행한 행위의 결과를 심판하는 종말론을 위한 것이며, 기독교 창조론처럼 현세의 삶의 질서를 긍정하고 창조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결여하고 있다.¹⁰⁾ 이는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내 백성을 지음은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라는 기독교의 창조론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이슬람은 알라가 천사와 인간 외에 신령(Jinn)들과 복제혼령(까리나)를 창조하였다고 주장한다. 혼령(까리나)는 인간이 출생할 때 따라 나오는 개념으로 정액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까리나는 진들의 후손으로 인간의 복제혼령으로 인간의 출생과 함께 출생한다. 까리나는 태어나는 아이의 성(性)을 가지고 있으며 복제의원형인 인간을 한 평생 따라다니며 귀찮게 굴며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며 인간의 사망과 더불어 그 생명을 다한다.¹¹⁾ 즉 이슬람은 끊임없는 까리나의 유혹을 피해서 율법을 행하고 오행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음악이라는 존재는 까리나로 하여금 인간을 유혹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영한에 의하면 인간을 알라에게 나아가게 하는 중보자는 없다. 알라는 경건한자는 사랑하나 죄인을 증오한다. 마호멧(무함마드)은 메시지를 가져다준다는 의미에서만 구원자 일뿐이다. 그리하여 알라와 인간을 매개하는 어떤 다리도 없다. 성례전이나 성화나 종교음악도 매개하지 못한다.¹²⁾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슬람에 있어서 음악은 그 중요성이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슬람의 예정이란 구속론적인 관심보다는 철학적 관심에 주도된다. 예정보다는 선결정이 중요하다. 알라의 절대적 존엄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알라의 의지에 의하여 미리 정해지고 무슬림은 그것에 절대 복종해야하는宿命주의로 나아가게 한다. 이에 반해서 기

7) 김영한, "이슬람과 기독교, 교리적 차이," 「대학과 선교」, Vol.5, (2003), 57.

8) 전완경, "아랍 음악의 이해" 「중동문제연구」 제8권 1호, [2009]), 88.

9) 김영한, 56.

10) 앞의 논문, 70.

11) 앞의 논문, 71.

12) 앞의 논문, 67.

독교의 예정론은 숙명론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적 행위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찬양을 강조한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적 행위를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신비롭게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의 오묘한 섭리와 주권에 대한 찬양을 증언한다.¹³⁾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 꼭 ‘음악’일 필요는 없지만 종교음악에 필요조건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슬람의 예전에는 음악이 허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슬람에 있어서 음악의 위치와 기독교에 있어서 음악의 위치는 커다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슬람도 경전의 하나로 인정하는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의 말씀을 생각하면 기독교는 이슬람에 비해서 찬송(찬양)에 충실함으로서 아브라함종교 중에서 보다 더 경전에 충실한 종교라고 할 수 있겠다.

2. 유대교의 경우

음악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예수 이후의 초기 중세기서부터 음악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독교음악이다. 하지만 음악사는 절대로 다윗의 음률이 어떠한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악기를 사용했는지 그들의 시편은 음악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의 음악사상을 논하고 로마의 악기들을 말하고 갑자기 그레고리오성가를 다루기 시작한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바탕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음악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음악이 서양음악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또한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도 할 수 없다. 서양음악의 종지부에서 마지막 음절의 음은 단 한 개의 음으로 끝난다. 예를 들어 ‘아멘’이라고 한다면 ‘아’는 여러 개의 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 개의 음으로 끝난다는 뜻이다. 특이하게도 그레고리오성가의 극히 일부분은 움직이는 ‘멘’을 보여준다. 그라두알레(Graduale)¹⁴⁾나 베스퍼랄레 로마눔(Vesperale Romanum)¹⁵⁾ 전체를 뒤져보아도 이러한 움직이는 ‘멘’은 20개를 넘지 못한다. 서양음악사가 그레고리오성가를 넘어 단음성가에서 다성음악으로 발전하면 위에서 말하는 움직이는 ‘멘’식의 유대인의 흔적은 완벽하게 사라진다.¹⁶⁾ 전문용어로 말하면 ‘멘’은 실라빅(syllabic)하고 절대로 멜리스마틱(melismatic)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서양음악사에서 유대인이 미친 영향은 단음성가에서 그 연약한 생명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히브리어는 콕틱(Coptic)을 비롯한 아랍 언어들이 그러하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문자다. 이러한 우횡서(右橫書)를 사용하는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에 맞는 기보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하였다. 자신에게 맞는 기보법이 없으면 외래의 기보법을 빌려 쓰면 되겠지만, 이 경우에 서양의 기보법(記譜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우횡서와는 호환되지 않는다. 결국 서양의 기보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횡서를 포기하고 알파벳을 빌려서 표기하는 수밖에 없다. 알파벳을 빌려 쓸 경우에는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음악 때문에 모국어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음악문화를 기록할 수 없었고 기록하지 않는 문화는 영향력을 가질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우횡서와 아무

13) 앞의 논문, p. 69

14) *Graduale Triplex*, Solesmis, MCMLXXIX (i.e.:1979)

15) *Vesperale Romanum*, ROMÆ, MDCCCXCVI (i.e.:1896)

16) 장우형, *Die theoretischen Quellen der musikalischen Formal "Differentia" in Westeuropa vom fruhchristlichen Zeitalter bis Mittelalter*, Westfalische Wilhelms Universitat,[2001] p. 2

런 관련이 없는 이스라엘의 기악음악-클레즈머(Klezmer)-은 상당한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고 있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데에 비해, 이스라엘의 성악음악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악보와 언어의 비호환성 때문이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국가를 표기함에 있어서도 그들은 악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p>왼쪽의 것이 이스라엘이 보통 그들의 국가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¹⁷⁾ 보는 바와 같이 악보는 없다. 오른쪽의 악보가 이 국가의 사실적인 모습이지만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공식 악보라고는 할 수 없다. 서양의 기보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사를 우형서인 자국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외래어인 좌형서 즉 알파벳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형서인 자국어와 서양악보의 비호환성으로 인해 악보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p>

유대인들이 그들의 시나고그(Synagoge)에서 사용했던 예전음악을 처음으로 채보하여 집대성한 사람이 이델존이다.¹⁸⁾ 이델존도 그의 악보에서 가사에는 알파벳을 사용하였다. 이델존의 모음곡집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예전음악은 대부분의 경우 매우 짧은 음악이다. 대부분은 10소절 내외의 짧은 것이고, 길어봐야 20소절에서 30소절인데 그것도 매우 드물다. 보통 악보를 사용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길이가 긴 음악은 외워서 불러야 하는 그들의 입장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찬송가가 보통 32소절 이상이고 유절형식 즉 4절까지 있기 때문에 모두 합치면 120소절 이상인 것을 생각해 보면 두 음악의 길이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예술적인 완성도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예전음악은 완성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음악이 이렇게 짧은 이유는 그들에게 기보법이 없기 때문이다. 기보법이 없으면 모든 음악을 외워야 하고 그런 이유로 음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음악의 길고 짧음만을 가지고 예술적 완성도를 잴 수는 없지만 거꾸로 10소절 정도의 짧은 음악이 예술적 완성도를 갖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꼭 높은 예술의 경지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예술적 완성도를 배경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기독교는 이슬람에 비해서 **뿐 아니라 유대교에 비해서도 찬송(찬양)에 충실함으로서 아브라함종교 중에서 가장 경전에 충실한 종교라고 하겠다.** 어떤 종교가 아브라함종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이냐를 따지는 것은 자칫 종교적 나르시시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어떤 종교가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우세한가의 판단은 상대편을 무시하거나 더 나아가 그들을 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편리한 이유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그들을 더욱 감싸주고 이해하며 책임지고 이끌어주고 도와주어야 할 의무를 상기시킨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도저히 구원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를

17) „Hatikva“ von Oren neu dag - Eigenes Werk, File:Flag of Israel.svg. Lizenziert unter CC BY 3.0 über Wikimedia Commons -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Hatikva.svg>
 18) A. Z. Idelsohn, *Hebraisch-Orientalischer Melodienschatz*, 10 Bände, Leipzig 1914~1932

감싸주시고 이해하시며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말이다.

V. 결론

음악신학은 오랫동안 조직신학이나 성서신학 혹은 역사신학의 범주에 속하는 학문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음악은 신학 안에서 오직 실천신학의 범주에만 속하는 학문이었고, 어떠한 경우에도 교의적 의미나 성서적인 해석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기독교 음악은 매우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CCM의 등장과 열린예배의 확산 등은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되었고 또한 기독교 음악가들 사이에서 더 이상 실천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교의학적인 의미의 판단을 요구하게 되었다. 많은 이론과 잡다한 신학적 논란들이 등장하면 할수록 음악의 신학적 판단에 대한 열망은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음악을 신학적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논리와는 차별화되고 음악을 신학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요구는 음악을 '기독교의 본질을 향한' 질문으로 이해했을 경우에만 하나의 새로운 학문의 영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본 논문의 취지이다. 음악을 '기독교만의 행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종교의 공통분모로 이해하고 각 종교에서 어떻게 음악을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오히려 새로운 결론 "음악을 통했을 때 기독교의 본질을 오히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슬람에서는 음악을 배제함으로 오히려 경전의 내용을 약화시키고 율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유대교에서는 그들의 유흥서와 서양음악의 기보법과의 비호환성 때문에 찬양의 예술적 완성도를 배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독교는 음악을 통해서 기독교가 갖는 가장 아름다운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인 가르침을 비로소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음악신학'의 존재가치를 설명해주고 그의 타당성을 힘차게 외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음악신학 전공자들을 통해 교의적인 의미에서와 성서신학적인 의미, 역사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음악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 본다.

VI. 참고문헌

- 김정우. "신학적 관점에서 본 CCM" 「기독교교육연구」, Vol.11 No.1, 2000.
- 김영한. "이슬람과 기독교, 교리적 차이" 「대학과 선교」, Vol.5 No.-, 2003.
- 이경숙.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연속과 단절 - 기독교와 유대교의 문화적 소통을 위하여" 「구약논단」, Vol.15 No.1, 2009.
- 장우형. "경배와 찬양 위주의 예배의 교회음악, 그 평가와 변화의 방향성," 「한국교회음악협회 제3차 학술포럼」 2009.
- 전완경. "아랍 음악의 이해" 「중동문제연구」 제8권 1호, 2009.
- 장우형. "Die theoretischen Quellen der musikalischen Formel "Differentia" in Westeuropa vom fruhchristlichen Zeitalter bis Mittelalter." Ph.D. Westfalische Wilhelms Universitat, 2001.
- Graduale Triplex. Solesmis, MCMLXXIX.

Idelsohn, A. Z., Hebraisch-Orientalischer Melodienschatz, 10 Bände, Leipzig
1914~1932.

Vesperale Romanum. ROMÆ, MDCCCXCVI.

주제어: 음악신학, 아브라함종교, 기독교음악, 이슬람, 유대교 (Theology of Music,
Abrahamitic religions, Church music, Islam, Judaism)

이 논문은 서울장신논단 제23집(2015) 529-546에 게재되었던 논문입니다.